

## 취약함을 모르는 부자의 패망(눅6리)

성경말씀: 눅18:18-34

공생에 마지막 한두 달, 요약: 취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19:10).

과부 여인의 간절한 기도(1-8): 취약함을 아는 사람만 그것을 해결해 줄 분에게 구한다.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한다(18:1). 간절하게, 특별히 재림의 때에는 믿음을 가진 자를 찾기 어렵다(8).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9-14): 간절한 자의 기도와 위선을 떠는 자의 기도, 후자는 기도가 아니다.

예수님의 선포(14):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칭의를 받았다.

예수님의 설명(15-17): 하나님의 왕국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떨리는 가슴으로 주님을 받아들여야 가능하다(17). 교회에 오면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에 감격이 없으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 취약함을 모르는 부자의 패망(마19, 막10)

오늘 부자 청년(마19:20): 주님의 말씀을 유심히 경청함(17), 주님의 가르침은 다른 선생들과 다른 청년: 아마도 25살 정도, 순수하고 열정이 있고 주님 보시기에도 사랑스러움(막10:21)

청년 시절: 참 좋은데 미스터리가 있다. 노년, 중년의 삶: 다 안다. 청년의 삶: 예측 불허 크게 될 수도 있고 30-40년 뒤에 악하게 될 수도 있다. 청년들은 특히 잘 들어야 한다.

부자 청년: 좋은 의도로 도움을 구하러 주님께 왔다가 더 나쁜 상태로 돌아감, 유일한 경우

거지, 술주정뱅이, 거짓말쟁이, 간음하는 자, 살인자 등이 이렇게 되었다면 관심이 덜 갈 것이다.

그는 도덕적, 종교적, 열심, 성실, 부자, 교육,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가지 못하므로 우리가 관심

1. 그는 많은 사람이 알아보지 못한 주님을 존중히 여기며 그분께 왔다. 눅10:25의 율법사도 동일한 질문, 그런데 의도는 그분을 시험하려는 것, 이 사람은 주님을 존중히 여김

2. 그는 삭개오처럼 달려 나왔다(막10:17). 무언가를 배우려는 열심히 있었다.

3. 대단히 종교심이 강하였다: 그의 질문은 영원한 삶(18), 특히 젊음 때는 비전과 이상을 꿈꾸는 때, 그는 무엇보다도 영원히 사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 보이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 특히 자기 민족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는 관심

4.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도 다 지켰으나(21) 구원받지 못해 공허한 상태 그런데 큰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 대화를 나눈 결과는 너무나 참담하였다(23).

## 무엇이 문제인가?

1. 그는 올바른 분에게 왔다: 사람의 창조자, 일거수일투족, 전지전능, 공흠, 십자가, 구원자

2. 올바른 주제(18): 영원한 생명, 3. 올바른 대답(22), 4. 그릇된 결정(23)

이유: 탐욕과 부정직, 하나님과 사람들과 자기에게 정직하지 못함, 부자라 자신의 취약함을 전혀 보지 못함

3. 그는 자기 안에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있다고 믿음(18): 본인의 선행 신뢰

## 주님과의 대화

그의 접근 및 대화 시작(18): “선한 선생님이여”,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도 ‘선하다’는 말을 붙이지 않았다. 그 말은 하나님에게만 사용됨(시25:8; 34:8 등)

그래서 주님은 다시 물음(19),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맞느냐?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으면서 그가 참으로 자기 말을 이해하는지 물음 이후의 그의 태도를 보면 그는 자신의 말을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아부성 발언을 함

그는 하나님의 관점의 선행이 무엇인지 모름,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심

죄에 대하여(20-21): 십계명의 후반부 5가지(이웃 관련 6개 중) 명령 준수 여부

율법의 용도(갈3:24): 거울과 같아서 죄를 보여 줄 뿐이지 고치지는 못 함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 부족함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가야만 함을 보여 주려 하심

그런데 그는 자기의 취약함을 전혀 보지 못하였다(21). 어찌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고 할 수 있는가?

6개 중에서 맨 마지막 탐심에 대한 것은 인용하지 않음(출20:17).

그의 마음을 아시고는 20:17을 인용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해 보라고 명령하심

재산을 팔아 나누어줌으로써 구원받는 사람은 없다. 자기의 죄들과 취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와야 한다.

제대로 깨달으면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와야 한다(롬7:7-9). 구원 받기 전(빌3:5-6)

구원받은 뒤 바울은 자기의 삶이 온통 탐욕의 욕정 덩어리,  
욕심을 부리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욕심, 21-25

그의 근본적인 문제(18), 무언가를 해야 구원받음(18:9-14), 11절

하라고 명령하자 불순종, 자기 방법이 아님, 그 결과 근심하며 돌아감: 하나님보다는 재물 선택  
예수님의 초점: 재물을 다 팔아서 바쳐라 No, 가난하게만 살아라 No! 선하다고 하기에 정곡을 찌름  
재물은 1. 인생무상을 보여 주는 도구(전도서), 2, 주님의 일을 하는 도구, 그런데 대개 잘 안 된다.  
탐욕은 이상승배(골3:5)

### 제자들의 반응

예수님의 선언(24-25), 여기의 낙타와 바늘귀는 실제 낙타와 바늘귀

제자들의 반응(26): 막10:24 깜짝 놀랐다.

구약 시대 유대인들의 생각: 물질은 하나님의 축복(신28)

유대인들은 땅의 백성, 그래서 물질의 축복이 중요하였다. 시간이 가면서 본질이 바뀐  
재물이 천국의 방해물이라는 생각은 불가능, 현시대의 오순절은사주의자들도 마찬가지로  
록펠러 같은 부자도 그렇게 생각하였다.

제자들의 생각: 그런데 부자들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의 확고한 선언(25): 재물은 특권이 아니라 저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욥과 다윗, 다니엘 등은 모두 부자였지 않은가?

물질에 사로잡혀 그것들을 신뢰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막10:24).

눅16:13, 두 주인 섬기는 것 불가능

부자가 되면 자기의 취약함을 보지 못 한다: 자기의 공로를 주로 생각한다.

딤후6:9,10, 17, 부자가 되면 교만, 거만, 오만, 무관심, 무반응, 거친 성격과 언행, 자기만족,  
세상 쾌락추구

그런데 재물이 많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27). 재물과 재능의 노예가 아니라 부리는 사람이 되면

그런데 재물의 고삐를 잘 쥐지 않으면 오히려 떨어져 다리가 부러진다.

베드로의 생각(28; 마19:27): 열심히 따르며 희생하였는데 그 결과는 무엇인가?

여전히 구약 시대 유대인들의 관점

무익한 종의 비유(눅17:7-10)를 이미 잊어버림

주님의 말씀(29-30): 현세의 복과 내세의 영원한 생명

그러면서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십자가 처형 언급(31-34)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것 등을 생각할 수 없었다.

### 결론

부자 청년은 누구인가? 믿음을 갖기 원하면서도 근본적인 가치관과 생활관이 바뀌기를 원치 않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환난이나 역경을 당하면 한숨을 쉬며 그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부른다. 그들은 그러한 환난과 역경이 성도에게나 죄인에게나 동일하게 임함을 망각한다. 십자가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한 데 따른 결과로서 우리에게 임하는 특별한 역경이다.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짐으로써 나타날 결과들을 충분히 알고서 자원하여 지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을 선택하며 순종함으로써 십자가 지기를 선택한다.)

청년들과 부자들(재물과 재능)의 두려움: 나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주님은 모두에게 그런 말씀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의 삶에서 버리고 바꾸어야 할 부분을 알려주실  
뿐이다. 나의 취약한 부분은 무엇인가? 주님이 알려주시면 바꾸어야 한다. 회개

올바른 조언이 나왔으므로 이제 결정은 우리가 내려야 한다.